

번호: PO-EP-034					
제 목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간의 BMI 변화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련성Kangwha Study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 in body mass index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nd increased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Kangwha Study				
저 자 및 소 속	이유정1), 김현창2), 남정모2), 서일2), 심지선2), 허남옥2), 안성복2), 하경수2), 조어린1), 장영화1), 장후선2), 최동필1) 1)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YuJung Lee1), HyeonChang Kim2), ChungMo Nam2), Il Suh2), JeeSeon Shim2), NamWook Hur2), SongVogue Ahn2), KyungSu Ha2), EoRin Cho1), YoungHwa Jang1), HooSun Chang2), DongPill Choi1)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of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BMI의 변화에 따른 추적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간의 BMI 변화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련성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보고자 한다.</p> <p>방법: 2005년 신체계측, 혈액 검사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은 25세의 건강한 대상자 281명(남:130명, 여: 151명) 중 1996년에 조사된 대상자 260명(남:114명, 여:146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경동맥 초음파에 의한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LOGIG 9,GE,USA)의 7.5MHz 선상 탐촉자를 이용하였다. BMI는 1996년과 2005년 측정된 BMI를 사분위수로 나누고 1996년에 비해 2005년도에 BMI가 증가한 그룹은 BMI 증가군, 감소한 그룹은 BMI 감소군, BMI에 변화가 없고 상위 사분위수(3,4)에 속한 그룹은 높은 BMI 유지군, BMI에 변화가 없고 하위 사분위수(1,2)에 속한 그룹은 낮은BMI 유지군(reference group)으로 나누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BMI변화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련성을 보았다.</p> <p>결과: 1996년도 BMI사분위수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남자는 1사분위수:0.515±0.055(27명), 2사분위수:0.556±0.054(30명), 3사분위수:0.555±0.053(29명), 4사분위수:0.563±0.054(28명), 여자는 1사분위수:0.540±0.051(37명), 2사분위수:0.535±0.047(36명), 3사분위수:0.537±0.041(37명), 4사분위수:0.553±0.058(36명)이었다. 2005년도 BMI사분위수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남자는 1사분위수:0.529±0.063(28명), 2사분위수:0.550±0.047(29명), 3사분위수:0.543±0.051(29명), 4사분위수:0.569±0.059(28명), 여자는 1사분위수:0.540±0.039(36명), 2사분위수:0.535±0.057(37명), 3사분위수:0.538±0.043(36명), 4사분위수:0.551±0.057(37명)이었다. BMI변화군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 표준편차 및 p-value는 다음과 같았다. 남자의 경우 낮은 BMI 유지군은 0.524±0.062(27명,reference), BMI 증가군은 0.541±0.055(30명,p=0.2306), BMI 감소군은 0.557±0.046(33명,p=0.0186), 높은 BMI 유지군은 0.570±0.057(24명,p=0.0032)이었고 여자의 경우 낮은 BMI 유지군은 0.542±0.046(43명,reference), BMI 증가군은 0.533±0.053(32명,p=0.4362), BMI 감소군은 0.536±0.042(32명,p=0.5914), 높은 BMI 유지군은 0.551±0.056(39명,p=0.4498)이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에만 낮은 BMI유지군에 비해 BMI감소군과 높은 BMI유지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p>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BMI가 일관적으로 높았던 그룹과 BMI가 감소한 그룹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원인 규명에 대한 고찰과 함께 여자에서의 BMI변화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p>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A040152)</p>					